

억압된 기억의 서사: 카즈오 이시구로(Kazuo Ishiguro)의 『희미한 언덕 풍경』(*A Pale View of Hills*) 연구

임 은 영
(전북대학교)

Lim, Eunyong. "Narrating the Oppressed Memory: A Reading of Kazuo Ishiguro's *A Pale View of Hills*."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6.3 (2020): 277-296.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Kazuo Ishiguro's debut novel, *A Pale View of Hills*, from the perspective of narrating the traumatic memory. The focus of the analysis is laid on the narrator of the novel, Etsuko's narrative on her experiences with and observation of her friend, Sachiko, in Nagasaki, Japan. What makes her narrative interesting is that it is delivered while she is passing through the traumatic event of her first daughter, Keiko's suicide. It is presumed in this paper that Etsuko with the strong pain of Keiko's death narrates her past with the intention to relieve her pain and sense of her guilt through the seemingly unrelated story of her friend. I also place much emphasis on her narrative strategy of manipulating memory for self-protection and self-deception in the process of her narrating traumatic event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Key Words: Kazuo Ishiguro, memory, narrating trauma, self-protection, *A Pale View of Hills*

I. 서론

카즈오 이시구로(Kazuo Ishiguro)의 장편소설 데뷔작인 『희미한 언덕의 풍경』(*A Pale View of the Hills*, 이후로는 『희미한 풍경』으로 표시)은 내용과 형식

측면에서 뒤이어 발표한 작품들의 원형이 될 만한 요소를 담고 있다. 형식에서는 일인칭 서술자를 등장시켜 고백적인 서사를 전개한다는 점이다. 일인칭 서술자의 기억서사는 지속적으로 진실성이 의심스러운 대목들을 노출하여 서사 전체를 의심의 눈초리로 다시 읽도록 만든다. 이 점이 바로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원형적 특성이다.

『희미한 풍경』은 노년의 여성 서술자 에츠코(Etzuko)가 큰딸 게이코(Keiko)의 자살 이후, 영국으로 이주해오기 전 나가사키(Nagasaki)에서 보낸 젊은 시절의 기억을 되새기는 내용인데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친구의 이야기가 중심을 차지한다. 그녀의 서사는 어느 순간 친구의 경험이 서술자 자신의 삶과 겹쳐진다는 사실을 독자가 알아차리도록 전개된다. 그러면서 이전에 그녀가 전달한 이야기 속의 행위자가 누구인지 결정하기가 어려워지고, 그 이야기의 사실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이런 특성은 뒤이은 작품에서 반복되고 변주된다. 두 번째 작품인 『부유하는 세상의 화가』(*An Artist of the Floating World*)에서는 노년에 이른 남성 화자가 현재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과거 사건의 은폐를 시도하는 서사를 전개시킨다. 그리고 세 번째 작품인 『그 날의 잔재』(*The Remains of the Day*)에서는 앞선 작품처럼 노년의 남성 화자를 등장시키지만 그는 일본인이 아니고 영국인이다. 화자 스티븐스(Stevens)도 과거 자신의 경력을 되돌아보면서 충성스러운 집사로서 완벽에 가까운 직업윤리를 실천하며 주인을 섬겼다는 서사를 전개하려 하지만, 현재의 사건들과 그의 매끄러운 서사에 균열을 만드는 정보들이 부끄러운 그의 경력을 노출시킨다. 이처럼 이시구로의 작품에는 과거를 회상하는 화자가 자신이 원하는 서사를 전개시키려 하면서 과거의 사건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반복적으로 전개된다.

이 논문에서는 이시구로 작품세계의 원형적 주제로 부를만한 기억과 기억의 서사화 과정에서 벌어지는 왜곡의 문제를 『희미한 풍경』을 통해 분석할 것이다. 과거에 대한 기억과 기억의 서사화의 문제는 집단적인 차원과 개인의 차원에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집단적 차원의 기억은 국가와 같은 거대집단의 역사 기록과 관련된 문제로서 역사 기록에 집단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여 과거의 사건을 재배치하거나 왜곡하려는 시도와 관련된다. 집단적 차원의 기억 조작은 역사서 집필, 박물관이나 조형물과 같은 기념시설이나 기물의 디자인과 배치, 정치조직

의 과거에 대한 선별적 부각과 같은 부분에서 발견된다. 집단적 차원에서 벌어지는 기억의 기록과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조작이 권력과 관련되었다면, 개인적 차원에서의 기억의 조작은 도덕적 차원과 감정적 차원에 영향을 받아서 일어난다. 오랜 과거의 기억이 희미해져서 일어나는 차원과 달리, 과거의 결정이나 사건에 대해 죄책감을 갖고 있을 경우, 특히, 그 결정이 시간이 흐른 뒤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을 경우에 느끼는 죄책감이 클 경우, 개인은 과거의 사건을 재구성하면서 죄책감을 경감시키는 시도를 할 수 있다. 도덕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행위가 갖는 책임을 낮추어 죄책감에서 해방되거나 감정적 차원에서의 불편함을 줄이려는 시도이다.

이시구로는 나가사키를 공간적 배경으로 한 그의 첫 번째 소설을 지나치게 핵폭탄 투하 사건과 연결시켜서 해석하려는 초기 비평가들의 시도에 불편함을 느껴서 그의 큰 관심사는 개인적 차원의 “감정적 변화”라고 인터뷰에서 밝힌다(Mason Gregory 6). 물론 이미 작가의 손을 떠난 텍스트를 작가의 관심사가 향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이 작품은 다른 이시구로의 소설들보다 더 등장인물의 개인적, 감정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그 이유는 이 소설은 서술자의 트라우마를 서사화하기 때문이다.

트라우마를 연구한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트라우마를 논리적으로 표현이 불가능한(unexpressable), 말할 수 없는(unspeakable) 상처라고 정의한다. 상처의 고통이 논리적, 이성적 이해를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경험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성적 언어로 표현하기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이러한 고통스런 상처를 남긴 기억은 때때로 사건 이후의 삶에 휘몰아치는 힘을 발휘하여 개인의 삶을 사로잡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고통을 말하기를 통해 논리적이고 이성적 수준에서 그 상처가 가진 힘을 통제해야 할 필요는 명백하다. 트라우마는 논리적 언어로 정리될 수 없기 때문에 이미지 또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덧입혀 우회적으로 표출할 수 있다. 이는 프로이트(Zigmund Frued)가 주장한, 무의식적 욕망의 의식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 응축(condensation), 투사(projection)와 같은 회피 전략을 이용하여 재현되는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희미한 풍경』의 화자 에츠코는 전쟁과 핵폭탄 투하를 현장에서 경험했고, 부모와 약혼자를 잃는 아픔을 체험했다. 그리고 그녀가 직접적으로 과거를 회상하

게 만든 계기는 첫 번째 결혼에서 얻은 딸 게이코의 자살이다. 에츠코는 과거 자신이 내린 결정이 딸의 죽음을 초래했다는 강렬한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이 혼과 재혼을 통한 영국이주 과정을 되돌아보게 된다. 그녀의 강한 죄책감이 고통스러운 트라우마 사건을 다시 한 번 대면하게 만든 것이다. 에츠코의 트라우마 서사는 딸의 죽음을 막지 못했던 어머니의 원죄의식이 뒤섞여서 전개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서 읽어나갈 때, 갑작스런 사치코(Sachiko) 서사의 등장 이유와 두 여성의 트라우마적 경험의 유사성, 그리고 에츠코의 자기 정당화 의지를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이 논문은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희미한 풍경』을 분석할 것이다.

II. 기억서사와 트라우마

『희미한 풍경』의 에츠코는 이 소설의 주인공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내밀한 과거사를 고백하는 서술자이다. 1인칭 서술자는 자신이 처한 서사의 환경으로 독자들을 직접 견인한다는 점에서 기술적인(descriptive) 장점이 있다. 반면 이러한 적극적인 개입이 종종 서사의 흐름을 방해하고 스토리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웨인 부스(Wayne Booth)의 용어를 사용하면, 1인칭 서술자는 서사의 일관성과 타당성이 부족한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로 분류된다. 전통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는 지적 능력이 결여되어 있거나, 정신적 특이성 또는 독특한 개인적 성향을 가진 인물들이었다. 하지만 이시구로 소설의 초기 세 작품을 이끌어 가는 1인칭 서술자들은 모두 이러한 범주에서 벗겨나 있다. 이들은 모두 불완전한 기억에 기대어 과거의 사건을 조합하고 이를 현재의 상황에 끌어와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내는, 서사의 향방을 결정하는 주체로서 활약하고 있다.

이 소설의 에츠코는 특히나 딸 게이코의 자살과 관련된 원죄의식을 현실에서 파악 가능한 수준으로 처리하여 자기 변론에 성공해야 하는 이중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서술자이다. 에츠코의 이 같은 이중적인 입장 때문에 그녀의 서사는 때로 자기 방어적이기도 하고 모호한 공백을 남긴 채 마무리된다. 또한 그녀의

과거 회상은 불완전하고 파편화된 기억으로 직조되어 트라우마 사건의 사실성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게 만든다. 에츠코가 진술하듯, “기억이란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며, 떠올리는 상황에 영향을 받아 채색되는”(156) 사실관계에 의문을 갖게 하는 이야기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에츠코의 고백은 사건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보다 트라우마를 경험한 인물이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 자기위안의 길을 모색하기 위한 여정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신씨아 웡(Cynthia F. Wong)은 “이시구로 소설은 서술자가 독자들에게 보고하고 있는 사건의 실제적 진실과 이를 현실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로 재가공한 서사 사이의 간극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25). 그녀의 분석은 에츠코 서사의 핵심이 허구와 실제 사이에 존재하는 틈을 탐색해 가는 과정에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시구로는 그레고리 메이슨(Gregory Mason)과의 인터뷰에서, 『희미한 풍경』의 주요 서사 전략이 에츠코의 이야기에 공백(gap)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Mason 4~5). 그리고 이 서사의 모호한 빈칸은 에츠코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수십 년 전 여름, 한 때나마 우정을 나누었던 사치코와 그녀의 딸 마리코를 회상하는 것으로 대신 메워진다.

나는 지금 게이코를 자세하게 떠올리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런 일은 나를 불편하게 한다. 여기서 게이코를 언급하는 것은 올해 4월 니키의 방문 때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아이가 머무는 동안 오랜만에 사치코를 떠올렸기 때문이다.

I have no great wish to dwell on Keiko now, it brings me little comfort. I only mention her here because those were the circumstances around Niki's visit this April, and because it was during that visit I remembered Sachiko again after all this time. (11)

에츠코는 게이코에 대한 기억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면서 뜬금없지만 사치코에 대한 회상으로 서사를 시작한다. 그녀의 화법은 이시구로가 이 소설을 집필할 당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서술방식에 관심이 있었다”(Ishiguro & Hunnewell 39)고 말한 지점과 유의미하게 겹쳐진다(이정화 144). 동시에 트라우마를 고백하는 희생자의 기억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트라우마 연구자들에 따르면, 희생자들은 치유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을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대안적인 시나리오”를 통해 진술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Bessel A. van der Kolk and Onno van der Hart 178). 즉, 트라우마를 말하는 희생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관찰자로 바꿔 과거의 경험을 재현하게 된다. 이 때 화자는 사건의 고통을 완화하고 이해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진술하게 된다(Caruth Cathy 152~154). 하지만 이들 연구자들에게 화자의 왜곡된 기억은 오히려 과거 사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공하고 당사자가 겪었을 실존적인 고뇌와 트라우마의 심연을 가늠하게 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자료가 된다.

또한 기억을 진실 규명의 중요한 자료로 인식하는 역사가들은 “잘못된 기억, 억제된 기억, 전치된 기억, 부정된 기억마저도 정보적 가치를 갖는다”(LaCapra H&M 19)고 평가한다(육영수 182~3). 물론 역사적 사건의 객관적 고증을 위해서는 정확한 수치와 일관성 있는 진술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역사기록 역시 “과거 개인 또는 집단이 소유한 ‘1차 기억(primary memory)’을 여과, 선별, 재구성한 결과물인 ‘2차 기억(secondary memory)’으로 후대에 전달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왜곡이 없는 순수한 기억을 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육영수 183). 같은 맥락에서 아우슈비츠 생존자들의 심리분석 전문가인 도리 라웁(Dori Laub)은 샬롯 델보(Charlotte Delbo)가 주장한 “깊은 기억”의 개념을 심화하여 사건 당사자들의 왜곡된 증언과 관찰이 갖는 의미를 학제 간 연구를 통해 탐색하였다(Erll Astrid 46). 트라우마의 “깊은 기억”이란 사건에 관한 객관적 인식 또는 사실에 부합된 정보 복원을 가능하게 하는 “일반 기억”과는 달리 누락과 배제, 강조와 같은 왜곡을 동반한 재구성 기억을 말한다(Erll 46). 이를테면 희생자들이 과거의 사건을 부정하거나 혹은 사건 자체가 발생된 적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도 깊은 기억의 회로에 따른 반응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 깊은 기억은 사건에 관해 ‘말해진 것(narrated)’과 ‘말해지지 않은 것(unnarrated)’ 사이를 매개하면서 트라우마의 엄청난 여파를 약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즉, 트라우마의 선명한 충격은 깊은 기억의 탐색과 왜곡을 거치면서 현실에서 대면이 가능해진 이야기로 가공된다.

『희미한 풍경』의 게이코 사건은 에츠코의 기억창고에서 처음에는 회피와 억압의 대상이었다. 심지어 에츠코는 게이코의 자살이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은 듯 행동하면서, 딸의 비극에 “자신은 책임이 없는 사람”(11)인 것처럼 담담하게 회상을 시작한다. 트라우마 사건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싶은 에츠코의 자기기만 또는 자기방어적인 태도는 게이코의 어린 시절 피아노 선생님이었던 워터스(Waters) 부인과 나눈 짧은 대화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게이코는 요즘 어떻게 지내나요?”

“게이코요? 오, 그 애는 맨체스터에 살려고 가 있습니다.”

“오, 그래요? 도시 전체가 멋진 곳이죠. 어쨌든 내가 들은 바로는 그런 것 같아요. 게이코가 그곳을 좋아하나요?”

“최근에는 그 아이에게서 소식도 듣지 못했어요.”

“오, 그래요. 무소식이 희소식일거예요. 게이코가 지금도 피아노를 치나요?”

“그럴 거예요. 최근에는 저도 아이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마지못해 응하고 있는 내 태도를 마침내 알아차린 듯 워터스 부인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화제를 바꾸었다. 게이코가 집을 떠난 후 몇 년 동안, 우리의 만남을 규정하는 것은 게이코에 대한 그녀의 집요한 질문이었다.

“How is Keiko getting on now?”

“Keiko? Oh, she went to live in Manchester.”

“Oh yes? That's a nice city on the whole. That's what I've heard anyway. And does she like it up there?”

“I haven't heard from her recently.”

“Oh well. No news is good news, I expect. And does Keiko still play the piano?”

“I expect she does. I haven't heard from her recently.”

My lack of enthusiasm seemed finally to penetrate, and she dropped the subject with an awkward laugh. Such persistence on her part has characterized our encounters over the years since Keiko's leaving home. (50~51)

이 장면에서 게이코의 자살은 에츠코의 깊은 기억의 맥락 안에서 ‘없었던 일’로 처리되고 있다. 오히려 그 끔찍한 사건이 현실에서는 ‘게이코가 맨체스터에서

잘 지내고 있을 것이다'라는 희망 섞인 기대와 함께 사실과는 다른 메시지로 치환된다. 하지만 에츠코의 의도적인 회피에도 불구하고 워터스 부인의 “어색한 웃음”(51)은 독자들에게 그녀가 게이코의 죽음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한다. 결국 둘의 대화에서 게이코에 대한 진실은 모호하게 처리되었지만 사건의 내막은 이미 영국의 신문에서 보도된 바 있었다. 당시 영국 사람들은 게이코의 순수한 일본 혈통에서 자살 충동의 원인을 찾으려 했고 언론에서도 그 점을 주목하고 있었다(10). 이처럼 여러 지면에서 일본인 게이코의 자살을 재빨리 다루었기 때문에 워터스 부인 또한 이 소식을 접했을 가능성이 높다. 어쩌면 그녀는 영국인의 관점에서 돌봄 책임자였던 에츠코에게 내심 호의적이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다. 심지어 남편인 셰링엄(Sheringham) 또한 게이코의 우울과 부적응의 원인을 일본인의 기질에서 찾으려 했을 만큼 에츠코가 느꼈던 인종적 편견은 상당했을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에츠코는 셰링엄이 일본 주재 기자로서 많은 기사들을 작성했지만 일본의 민족적인 특성과 문화에 대한 이해는 전 남편 지로(Jiro)보다 부족했다고 평가한다(90). 이 장면은 에츠코가 지로를 “애정 어리게 회상”(90)한 것이라 분석하기보다 셰링엄의 편향된 문화 인식에 대한 에츠코의 일침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셰링엄은 지로를 “바보 같은 사람”(90)이라고 생각했지만 에츠코가 기억하는 지로는 그 정도로 형편없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말이다.

이주 여성으로서 인종적, 문화적 차이/차별을 경험하고 있던 에츠코가 워터스 부인을 포함한 지인들과의 조우에서 게이코의 죽음을 공식화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게이코의 자살은 영국인들이 일본인 어머니 에츠코에게 불편한 시선과 편견을 제공할 소지가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게이코의 자살에 대한 진실의 노출과 은폐의 긴장관계를 몸소 구현하고 있는 에츠코는 딸에 대한 죄책감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해야 할 필요를 강하게 느꼈을 것이다. 워터스 부인과의 대화를 지켜본 니키(Niki)는 에츠코가 “게이코 언니가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즐기는 것 같다”(52)고 느낄 정도로 에츠코의 자기방어는 절실해 보였다. 이처럼 딸의 자살 사건에 대한 에츠코의 인지 부조화 내지는 역설적 재현은 “트라우마 안에 머물기를 소망하는 무의식적인 욕망”(LaCapra 22)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도미니크 라카프라(Dominique LaCapra)는 트라우마적 사건에 대한 기억의

대처 방식을 행동화(Acting-out)와 성찰적 극복(Working-through)이라는 정신 분석학 개념으로 설명한다. 행동화란 트라우마가 남긴 상흔이 너무 큰 나머지 현실에서 과거의 경험을 악몽, 환청 등으로 다시 한 번 재현하게 되는 일종의 “강박증적인 증상”을 말한다(정지민 22). 이를테면 에츠코가 게이코의 방 주변을 서성일 때 느끼는 불안과 공포, 게이코의 방에서 들리는 듯한 작은 소리 등이 에츠코의 행동화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들이다. 심지어 에츠코는 공원 산책 중에 만난 그네 타는 소녀에 관한 꿈을 꾸면서 게이코를 떠올리게 되고 불면의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반면 성찰적 극복은 트라우마의 당사자가 과거의 기억을 고통스럽게 떠올리지 않으면서 현재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즉, 사건 이후의 시간 인식이 보다 명확해진 단계를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에츠코의 기억장치에서 게이코의 자살은 현실 부정이라는 행동화의 단면을 만들어 성찰적 극복을 방해하고 있다. 그녀는 딸의 자살에 영향을 주었을지도 모르는 자신의 선택들을 대면할 용기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트라우마 안에 머물기를 욕망하면서, 사건에 대한 인식도 단죄도 최대한 유보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에츠코가 게이코의 자살을 과거의 기억으로 저장한 채 현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게이코에 대한 죄책감을 상쇄시킬만한 합리화의 명분을 제시해야만 한다. 그녀가 이러한 자기입증에 실패할 경우 트라우마의 성찰적 극복은 영원히 불가능해 진다. 워터스 부인을 만났을 때까지도 에츠코는 자신의 입장을 변론하기 위한 근거를 명확하게 확보하지 못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녀는 게이코에 대한 죄책감에 사로잡힌 무책임한 어머니를 트라우마의 깊은 기억 속에 또는 사건 발생 이전의 시간 속에 가두고 싶었을 것이다. 그리고 미제로 남은 실패한 어머니의 죄책감을 누군가에게 대신 투영하여 과거를 새롭게 이야기하고 싶었을 지도 모른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에츠코가 왜 30여 년 전 나가사키에서 만난 사치코를 현 시점에서 떠올리고 있는지, 그 동기를 명확하게 추론할 수 있게 된다.

III. 트라우마를 말하기

에츠코의 회상은 앞 장에서 분석한 것처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를 겪고 있는 한 인물이 서사를 통해 트라우마 사건을 이해 가능한 수준으로 처리해내는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논증불가의 비극적 사건으로 외상을 입은 기억은 에츠코의 “깊은 기억”이 그러했듯, 일차적으로는 억압과 회피를 통해 현실을 부정하게 된다. 하지만 트라우마는 그 속성상 아무리 강력한 방어기제로 당시의 고통을 완충하려 해도 당사자에게 예고 없이 귀환한다. 에츠코 역시 트라우마의 이러한 지배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채, 게이코에 대한 기억을 과거와 현재, 그리고 일본과 영국으로 분산시켜 고통스러운 반복을 되풀이하게 되었다. 그녀는 딸의 비극을 초래한 원인들을 직접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사치코’라는 인물이 살아온 삶을 회고하면서, 관찰자의 시선을 빌어 당시의 정황을 객관적으로 조망해 보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에츠코는 게이코의 자살과 관련하여 어머니로서 짊어져야 했던 죄책감의 강도를 어느 정도 희석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치코 이야기는 브라이언 쉐퍼(Brian Shaffer)가 분석한 것처럼, 에츠코의 죄의식을 대신 투사하기 위한 일종의 “번제물” 역할을 하고 있다(24). 따라서 에츠코의 말하기는 자신과 사치코를 대조적인 인물로 인식하도록 설정하여, 사치코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우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특히 그녀가 재구성하는 사치코의 삶은 가정의 해체, “도쿄라는 대도시에서 경험한 흥흥한 사건들”(73)로 점철된다. 또한 사치코는 전쟁 이후 암담한 현실 속에서 자신을 이끌어 줄 남성 없이 불확실한 나날을 살아가고 있는 한 부모 가정의 가장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어머니로서 사치코는 딸 마리코의 이상행동과 부적응 문제를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다. 심지어 그녀는 딸이 자주 집을 뛰쳐나가지만 가출한 아이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지 않아 독자들에게는 모성을 포기한 어머니인 것 같은 인상마저 들게 한다.

반면 에츠코는 후지와라(Mrs. Fujiwara) 부인과 사치코의 기대처럼 “훌륭한 엄마”(14, 15, 77)가 될 가능성을 가진 여성으로 여러 번 언급된다. 또한 에츠코의 회상이 깊어질수록 방치된 마리코를 살뜰하게 돌보는 것도 어머니 사츠코가 아닌 이웃 아주머니 에츠코를 통해 대신 수행되고 있다. 이처럼 에츠코의 서사는 ‘어머니’라는 역할을 구현하고 있는 두 인물을 완벽한 대립 항으로 처리함으로써, 서사 초반 에츠코에게 향했던 비난의 눈초리를 자연스럽게 사치코로 이동시

키는데 성공하고 있다. 이는 “에츠코가 ‘좋은 엄마’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실 패한 엄마의 죄책감’(Shengmei Ma 54)을 사치코에게 전가”하려는 왜곡된 의도로 읽혀진다(이정화 144). 그리고 이러한 대조적인 구도 설정은 독자들에게 에츠코가 왜 사치코의 삶을 떠올리게 되었는지, 그 최초의 동기마저 잊히도록 만들어 궁극적으로는 게이코 사건에 대한 관심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독자들은 사치코의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에츠코의 과거를 추적하기 위한 통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환기해야 한다. 동시에 이 소설을 분석하는 논문의 방점 역시 에츠코가 트라우마 사건과 관련된 복잡한 감정의 동요를 사치코라는 틀을 활용하여 어떻게 채색하고 있는지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에츠코가 사치코에 대해 무엇을 이야기하든 그 발화의 동기와 목적은 결국 자신의 과거 선택들을 독자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우회로가 될 뿐이다.

에츠코가 사치코의 삶에 책임을 전가하게 되는 일들이 갖는 의미는 명백하게 (에츠코) 자신의 삶과 관련된 것들이다. 사치코와 그녀의 딸에게 발생한 사실이 무엇이든, 이것들은 현재 에츠코의 관심사가 된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사치코와 마리코의 사건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자들은 이 다른 사람 이야기의 고도로 에츠코화된 버전을 듣게 된다.

The meanings that Etsuko imputes to the life of Sachiko are obviously the meanings that are relevant to her (Etsuko's) own life. Whatever the facts were about what happened to Sachiko and her daughter, they are of interest to Etsuko now because she can use them to talk about herself. So you have this highly Etsuko-ed version of this other person's story. (Mason 5)

에츠코의 회상이 시작되면서 독자들은 사치코와 마리코의 이야기를 먼저 읽어 나가게 된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사치코 모녀의 일화에 고정되는 동안 에츠코는 그들의 이야기를 일종의 안전지대로 삼아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재조합하기 위한 완충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 소설의 서사 구조에서 가장 안쪽 깊숙한 곳에 자신과 게이코의 이야기를 감추어둠으로써 일본에서의 삶과 이주의 과정에서 발생한 게이코의 희생에 대한 직접적인 논박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희미한 풍경』의 중층적인 서사 구조는 에츠코의 트라우마를 감싸

는 외피로 작동하고 있다. 즉, 사치코의 이야기는 이 소설의 속살인 에츠코의 죄책감을 방어하기 위한 견고한 껍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이유로 독자들은 에츠코의 과거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채 사치코를 통해 게이코 사건의 원인을 추정해 볼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에츠코의 회상이 진행될수록 에츠코와 사치코의 삶은 뫼비우스의 띠처럼 하나로 연결되는 지점을 만들어 낸다. 이는 두 인물의 삶에서 공통적으로 발생된 사건의 자취들이 하나의 동일한 이미지를 그려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모두 한 개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변화시키고자 열망했던 과도기의 여성 그리고 모성 책임에 대해 두려움을 느꼈던 어머니라는 점에서 동일한 인물로 수렴된다.

에츠코의 초기 회상은 자신을 사치코와 비교해서 긍정적인 어머니로서 식별되도록 묘사하는 장면이 많았다. 하지만 후지와라 부인이 보기에 임신한 에츠코의 표정은 “불행한”(77) 기색이 역력했으며 심지어 “절망적”(24)이기까지 했다. 그녀는 에츠코의 우울과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아이가 태어나면... 기쁨이 찾아올 것이다”(77)라고 말하면서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조언한다(24~25). 하지만 부인의 격려에도 불구하고 에츠코는 엄마가 되는 것에 대한 기대보다 부담감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모성 책임에 대한 에츠코의 걱정과 불편감은 어린 나이에 출산을 하게 된 니키의 친구에 대해 이야기 하는 장면에서 다시 한 번 표출된다. 그녀는 “사람들은 영화 속에서나 아기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뻐하는 것처럼 보일 뿐 실체는 전혀 다르다”(49)라고 말하면서 양육에 대한 현실적인 고충을 드러내고 있다. 에츠코 역시 사치코의 미국인 남자친구 프랭크(Frank)가 그랬듯 아이에 대한 “두려움”(86)을 내재하고 있는 인물로 분류될 수 있다(Shaffer 23). 그리고 그 두려움은 전쟁 후 자신의 상처도 완벽하게 치유되지 못한 상태에서 또 다른 생명체를 책임져야 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이복기 125).

이러한 딜레마적인 상황에서 남편 지로는 에츠코의 모성 불안을 극복하는데 조력하기보다 오히려 심화시키는 인물로 설정된다. 당시 일본에서는 젊은 연인들이 공공장소에서 함께 손을 잡고 다니는 일이 “유행”(120)이 되어 버릴 정도로 사회 분위기는 한층 개방된 상태였다. 하지만 에츠코의 기억 속에 “지로는 단 한 번도 그렇게 거닐어 본 적이 없”(120)을 정도로 둘의 관계는 남녀로서 애

뜻해 보이지 않았다. 한편 에츠코와 지로의 관계에서 나타난 냉랭함은 사치코의 결혼생활에서도 쉽게 발견된다. 사치코는 전쟁 전 유럽과 미국에서 탄탄한 인맥을 가진 아버지 덕분에 해외에서 일할 기회를 꿈꾸면서 영어 공부를 해왔다. 하지만 한 개인으로서 사치코가 가진 활력과 성취의 욕망은 결혼 생활의 전통적인 책임과 역할 앞에서 무너지고 만다. 사치코의 남편은 어떤 의미에서, 오가타(Ogata-San) 세대의 교육자들이 평생 강조해 왔던 “일본 정신”(65)을 체화한 “엄격하고 애국심이 투철한”(110)사람이었다. 그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110) 인물로 아내의 영어공부를 허락하지 않았고 마침내 책을 내다버리기까지 했다(72~3). 후미오 요시오카(Fumio Yoshioka)는 이 장면이 사치코의 결혼 생활을 압축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부부 사이에 “언어적, 정신적인 소통이 차단된” 극한의 상황으로 설명한다(77). 이처럼 에츠코와 사치코의 여성으로서의 삶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흔적들은 서사 초반 두 인물 사이에 그려 놓은 명확한 경계선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에츠코와 사치코의 관계는 『희미한 풍경』을 분석하기 위한 중요 쟁점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해 많은 비평가들은 두 인물을 동일인의 분열된 두 인격체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르위스 배리(Lewis Barry)가 분석한 것처럼, 에츠코와 사치코를 굳이 하나의 인물로 인식하지 않더라도 이 소설이 전달하고자 하는 주요 맥락을 파악하는 데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 다만 그가 두 인물의 정체성을 통해 주장하고자 한 바는 사치코가 실존/가상 인물인 것과 무관하게 이 소설에서 서사의 안과 밖 구조가 전치되는 구간이 발생한다는 점이다(Barry 36). 이 지점에서부터 에츠코는 사치코의 삶을 조감하며 기록했던 관찰자의 입장이 아닌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전달하는 1인칭 서술자가 된다(Mason 5). 배리가 주목한 서사구조의 역전이 발생하는 대목은 마리코가 사치코의 오두막을 뛰쳐나가면서, 에츠코/사치코, 게이코/마리코의 정체성이 뒤섞이는 장면에서부터 시작된다.

“나는 가고 싶지 않아.” “나는 그 남자[프랭크]가 싫단 말이야.”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숨을 내쉬었다.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그곳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 돌아올 수 있어.” 나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이번에는 그녀가 질문하듯 나를 바라보았다.

“그래, 약속할게.” 내가 말했다. “네가 그곳을 좋아하지 않으면, 우리는 곧장 돌아올 거야.”

“I don't want to go away.” “And I don't like him.”

The child said nothing. I sighed again.

“In any case,” I went on, “If you don't like it over there, we can always come back.”

This time she looked up at me questioningly.

“Yes, I promise,” I said. “If you don't like it over there, we'll come straight back...” (172-3)

에츠코는 사치코 모녀가 프랭크와 합류하기 위해 고베로 떠나는 것이 결정되던 날을 떠올리고 있다. 새 아버지가 될 프랭크에게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마리코에게 에츠코는 ‘그 곳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나가사키로 돌아올 수 있다’며 아이를 안심을 시킨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 에츠코와 마리코는 ‘우리’라는 대명사로 함께 묶여 향후 나가사키를 떠나려는 사람들이 사치코 모녀가 아니라는 확증을 제공한다. 이처럼 마리코와 게이코를 한 인물로 인식하게 만드는 기술적인 오류 또는 의도된 서사 전략을 통해 독자들은 에츠코가 이 서사를 통해 진정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누구의 것이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녀는 사치코와 마리코의 삶을 회고하면서 사실은 게이코의 비극을 초래하게 된 자신의 과거사를 역순으로 조합하고 있었다. 게이코가 맨체스터의 셋방으로 떠나기 전 그녀는 가족들과 절연할 정도로 고립되었고, 그 이전에는 본가에서 새아버지에게 친딸 니키와는 다른 “공정하지 못한”(175) 대우를 받고 있었다. 에츠코는 이 모든 상황을 초래한 첫 단초가 나가사키를 떠나기로 한 자신의 결정에서 비롯되었다고 확신한다. 하지만 그녀의 선택 이면에는 한 개인의 삶이 자유롭게 구현되기 어려웠던, 전쟁 이후 일본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들이 배경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당시 나가사키라는 공간이 집단적으로 겪었던 트라우마는 이 소설의 제목 “희미한 언덕의 풍경”이 함축하는 것처럼 언어가 아닌 도시 전체를 관통하는 전경, 즉 이미지로만 응축되고 있다.

에디스 밀턴(Edith Milton)은 이 소설에서 이시구로가 원자폭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생략했지만 그 존재는 이미 등장인물들의 삶 속에 파편처럼 흩어져

서사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고 평가한다(12). 또한 니콜라스 드종(Nicholas de Jongh)은 폭탄을 이 소설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읽어내면서 전쟁의 여파 그 자체를 『희미한 풍경』의 “보이지 않는” 또는 “감추어진 주인공”으로 파악하고 있다(11). 이들의 분석은 이 논문의 첫 번째 장에서 검토했던 트라우마의 희생자들이 어떻게 기억하고, 말하는지 그 과정을 다시 한 번 상기하게 한다. 이미 분석한 것처럼, 끔찍한 사건을 경험한 당사자는 자신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을 아이러니하게도 표면화하지 못한 채 오히려 억압한다. 에츠코가 게이코 사건을 직접 말하지 못하면서 사치코 이야기 안에 감추어 두었던 것도 이와 같은 외상기억의 처리과정에 따른 반응이었다.

이러한 논리적 흐름을 이시구로의 소설 집필과정에 적용해 볼 때, 밀턴의 지적은 상당한 통찰을 제공하게 된다. 그는 이시구로가 이 소설에서 폭탄을 가장 “말해지지 않은” 정보로 처리함으로써, 독자들에게는 이 사건이 작가가 전달하고 싶었던 핵심적인 이야기일 수 있다는 점을 서사 전략적인 관점에서 분석했다(Milton 12). 즉, 사치코 서사가 게이코 사건을 조망하기 위한 틀이었다면, 이제 게이코의 비극 깊숙한 내막을 걷어내면 이 소설에서 거의 언급된 적이 없었던 나가사키 폭격 사건이 윤곽을 드러낸다. 한편 트라우마 연구자들에 따르면, 외상 기억은 일반 기억과는 다른 방식으로 저장되는데, 이를테면 일상적이지 않은 감정, 육체적인 감각과 플래시백 또는 악몽 등이 트라우마의 저장소가 된다고 한다(Bessel A. 172). 트라우마 사건이 현실 속에 재현되는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사건의 고통이 어찌되었든 언어로는 구조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Ljubica Matek 137).

이러한 관점에서 니키는 『희미한 풍경』을 읽고 있는 독자들을 대신해 지금까지 에츠코가 서사 내부에 숨겨 두었던 게이코 사건보다 더 안쪽에 위치한 한 장의 이미지를 새삼 외부로 노출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녀는 에츠코의 회상이 마무리될 즈음, 아버지 세링엄이 일본 주재기자 시절 작성했던 기사들과 나가사키 항구에서 내려다 본 언덕 풍경이 담긴 낡은 달력 한 장을 들고 런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세링엄의 기사와 에츠코가 간직해 왔던 달력 속 사진은 언어와 비언어, 남성과 여성, 서양사회와 동양사회의 대조를 보여주면서 당시 나가사키 폭격의 고통을 보다 선명하게 구현하고 있는 사료가 무엇일지를 질문하고 있다. 세링엄의 글들은 기자의 시선에서 폭격 이후 무너진 공동체를 보고하면서 이를

재건하기 위해 노력했던 또는 좌절된 당시의 과정을 객관적으로 기술한 기록물이었을 것이다.

반면 에츠코의 달력 속 나가사키 풍경은 이미 그 이미지가 상당부분 파손되어 역사적 자료로서 권위를 잃은 상태이다. 하지만 이 사진은 당시 나가사키의 현실을 객관적인 언어로 옮긴 세링엄의 기사와는 달리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폭격 당사자들의 심경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자료가 된다. 즉, 이 달력 속 이미지는 주관적인 해석이 반영되어야만 하는 개인사적인 유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이시구로가 이 소설의 결말에 이러한 장치를 추가한 설정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작가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하는 대목이다. 지금은 다 찢겨나가 마지막 한 장만이 남게 된 이 달력을 놓고 에츠코와 니키가 나누는 짧은 대화는 지금까지 이 소설이 주목해 온 트라우마 사건에 대한 작가의 총체적인 입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아침에 준 달력은 나가사키 항구의 모습이란다. 오늘 아침 나는 우리가 소풍삼아 거기에 갔던 그 날을 떠올려 봤어. 항구 위 언덕들이 정말 아름다웠지.”

.....

“뭐 특별한 것이라도 있었나요?” 니키가 말했다.

“특별한 거라니?”

“그 항구에 갔던 날 말이에요.”

“아, 특별한 것은 하나도 없었단다. 그저 그 때 생각이 났을 뿐이야. 그날 게이코는 행복해 했었지” 내가 소리 내어 웃으며 니키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래 특별한 것은 하나도 없었단다. 그저 행복한 추억이었지.”

“That calender I gave you this morning,” I said. “That's a view of the harbour in Nagasaki. This morning I was remembering the time we went there once, on a day-trip. Those hills over the harbour are very beautiful.”

.....

“What was so special about it?” said Niki.

“Special?”

“About the say you spent at the harbour.”

“Oh, there was nothing special about it. I was just remembering it, that's all. Keiko was happy that day.” I gave a laugh and turned to Niki.

“No, there was nothing special about it. It was just a happy memory, that's all.” (182)

에즈코와 니키의 대화는 인용문 그대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만한 내용이 없다. 하지만 여기서 이시구로가 강조하고 싶었던 점은 게이코와의 행복했던 한 때를 기쁘게 추억하고 있는 에즈코의 모습과 마지막 남은 이 사진 한 장을 니키에게 건네 버린 에즈코의 결단에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에즈코가 고통스러운 자신의 과거를 긍정하면서 이제는 그 상처들과 결별해 보겠다는 용기 있는 태도는, 이 소설에서 다루었던 트라우마의 기억들이 과거의 맥락으로 편입되어 가고 있다는 전조로 읽혀진다. 또한 나가사키의 풍경을 원폭 사건의 끔찍한 기억으로 바로 연결 짓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서사를 이끌어 간 작가의 구성력은 이 소설에 등장한 전후세대들의 삶에 독자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기 위한 고심의 흔적으로 보여진다. 이시구로의 이러한 치밀한 계산 때문에 우리는 에즈코의 서사를 단순히 실패한 어머니의 참회록으로만 치부할 수 없게 된다.

IV. 결 론

포스트모던 비평가 이هاب 핫산(Ihab Hassan)은 사람들이 “공허, 광증, 분노, 황홀”과 같은 극한의 현실을 다루는 방식으로 역설적이게도 설화(narration)가 아닌 침묵을 선택하게 된다고 설명한다(13). 그의 지적은 지금까지 이 논문에서 분석한 에즈코의 ‘트라우마 말하기’ 방식에 반영된 화자의 태도와 심리를 압축한다고 볼 수 있다. 에즈코는 서사를 통해 딸 게이코에 대한 죄책감으로 얼룩진 자신의 현실을 핫산이 말한 ‘침묵의 언술’로 구조화했던 것이다. 또한 그녀는 게이코의 비극적인 결말에 원인을 제공했을 것이라 추정되는 이주의 과정을 다른 사람의 인생을 빌어 성찰하면서 사건의 충격으로부터 한 걸음 거리를 둘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녀의 서사는 표면적으로 사치코와 마리코의 삶을 진술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본에서의 첫 번째 결혼생활과 게이코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하지만 에즈코가 이 소설에서 차마 상술하지 못한 채 빈 칸으로 남겨 버린 서

사의 공백들은 ‘트라우마 사건 앞에서 과연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실존적인 질문을 던지게 한다. 이시구로는 이 물음에 ‘기억’을 서사의 변수로 개입시킴으로써 에츠코의 서사를 중층적으로 분석해야할 필요를 호소하고 있다. 트라우마 이론가들이 이미 연구한 것처럼, 트라우마는 치유를 위해 반드시 말해져야만 하지만 이를 말하는 것이 또한 불가능하다는 자체적인 딜레마를 안고 있다 (Caruth 154). 따라서 트라우마 말하기는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친 최초의 사건을 기억의 변용가능성으로 다시 한 번 조합해 낸 2차 기억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희미한 풍경』의 에츠코 역시 게이코의 비극과 관련된 ‘날 것 그대로의’ 사실들을 왜곡된 기억으로 가공하면서 딸에 대한 죄책감을 현실에서 대면이 가능한 수준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에츠코의 서사는 기억의 속성이 그러하듯, 불완전하며 가변적이라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심지어 그녀의 이야기는 나가사키를 배경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원자폭탄으로 붕괴된 공동체의 참혹한 실상을 언급하지 않는다. 특히 이 소설에서 파국으로 치닫게 된 몇몇의 사건들, 이를테면 나가사키 사람들의 파편화된 삶, 이주를 계획했던 어머니와 가정 내에서 고뇌했던 과도기의 여성들 그리고 재혼 가정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게이코의 자살 등은 언어체계의 한계를 꼬집듯 끝내 서술되지 않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희미한 풍경』은 말로 형용될 수 없는 트라우마의 흔적들을 최소한의 언어만으로 간추린 전후의 나가사키 공동체에 대한 기록물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때의 기록은 무엇보다 사건의 여파를 온전히 감당해온 개인들의 삶과 감정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다. 이시구로가 이 작품을 통해 보여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접근 방식은 다음 작품, 『부유하는 세상의 화가』를 통해 전쟁과 기록이라는 화두로 다시 한 번 변주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서술자의 기억은 여전히 서사의 향방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유효하다.

Works Cited

- Barry, Lewis. *Kazuo Ishiguro*. Manchester: Manchester UP, 2000. Print.
- Bessel A. van der Kolk and Onno van der Hart. “The Intrusive Past: The Flexibility of Memory and the Engraving of Trauma.” *Trauma: Explorations in Memory*. Ed. Cathy

- Caruth. Baltimore: Johns Hopkins UP, 1995. 158-182. Print.
- Caruth, Cathy. "Recapturing the Past: Introduction." *Trauma: Explorations in Memory*. Ed. Cathy Caruth. Baltimore: Johns Hopkins UP, 1995. 151-157. Print.
- Chung, Jee Min. *Dominick LaCapra's Historical Trauma Studies on the Holocaust*. Seoul: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2008. Print.
[정지민. 『도미니크 라카프라의 역사적 트라우마 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 Erll, Astrid. *Memory in Culture*. Tran. Sarah B. Young.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6. Print.
- Hassan, Ihab, *The Dismemberment of Orpheus: Toward a Postmodern Literature*. Masdison: U of Wisconsin P, 1982. Print.
- Ishiguro, Kazuo. *A Pale View of Hills*. New York: Vintage, 1982. Print.
- _____, Kazuo, and Susannah Hunnewell. "Kazuo Ishiguro: The Art of Fiction No. 196." *The Paris Review* 184 (2008): 23-54. Print.
- LaCapra, Dominick. *Writing History, Writing Trauma*. Baltimore: Johns Hopkins UP, 2001. Print.
- _____, Dominick. *History and Memory After Auschwitz*: Ithaca: Cornell UP, 1998. Abbreviated as LaCapra H & M. Print.
- Lee, Bokki. "Kazuo Ishiguro's *A Pale View of Hills*: Between a Female Individual and Motherhood."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1.4. (2015): 109-129. Print.
[이복기. 「『이시구로의 희미한 언덕의 풍경』: 여성과 어머니 사이에서」. 『영어영문학연구』 41.4. (2015): 102-129.]
- Lee, Junghwa. "Reconstructing the Past: History, Memory, and Writing in Kazuo Ishiguro's *A Pale View of Hills*."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29.2. (2016): 133-148. Print.
[이정화. 「과거의 재구성-가즈오 이시구로의 『희미한 언덕풍경』에 나타난 역사, 기억, 기록」. 『영어영문학』 29.2 (2016): 133-148.]
- Ljubica, Matek. "Narrating Migration and Trauma in Kazuo Ishiguro's *A Pale View of Hills*." *America, British and Canadian Studies* 31 (2018): 129-146. Print.
- Ma, Sheng-mei. *Immigrant Subjectivities in Asian American and Asian Diaspora Literatures*. New York: State of New York P, 1998. Print.
- Mason, Gregory. "An Interview with Kazuo Ishiguro." *Conversations with Kazuo Ishiguro*. Eds. Shaffer, Brian W. and Cynthia F. Wong. Jackson: UP of Mississippi, 2008. 3-14. Print.
- Milton, Edith. "In a Japan Like Limbo." *New York Times Book Review*. 9 May 1982, 12-3. Print.
- De Jongh, Nicholas 'Life After the Bomb', *Guardian*. 22 Feb. 1982, p.11. Print.
- Shaffer, W. Brian. *Understanding Kazuo Ishiguro*. Columbia: U of South Carolina P, 1998. Print.

Wong, F. Cynthia. *Kazuo Ishiguro*. Devon: Northcote House, 2000.

Yook, Young Soo. "Memory, Trauma, and Psychoanalysis: Dominick LaCapra and Theory of Holocaust." *Journal of American Studies*. 36 (2004): 172-199. Print.

[육영수. 「기억, 트라우마, 정신분석학: 도미니크 라카프라와 홀로코스트」. 『미국학논집』 36 (2004): 177-199.]

임은영 (전북대학교/강사)

주소: (5489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이메일: fresponse@daum.net

논문접수일: 2020. 06. 30 / 심사완료일: 2020. 08. 12 / 게재확정일: 2020. 08. 12